

2MB 교육 정책, 갑갑해서 목이 메는 우리들

정부는 "다양성"과 "교육권"을 보장하겠다며 경쟁을 더 빠르게 하고, 학교와 학원에 대한 규제들을 없애겠다고 해. 시험을 더 많이 보고, 성적을 공개해서 학교와 학생들을 더 줄 세우겠다고도 하지. 정말 갑갑해서 목이 메이지 않니? π "다양성"과 "교육권"은 경쟁을 빠르게 시켜서는 이를 수 없어. 반대로, "다양성"과 "교육권"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서열화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하고 존중할 때 보장할 수 있는 거야.

입시경쟁을 없애야 해. 점수로 인간을 평가하는 시험과 서열화를, 반강제적인 학교/학원의 입시교육을 중단시켜야 해. 정작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데, 국가경쟁력 몇 위고 어쩌구 하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갑갑해서 목이 메는 사람들

일제고사, 학교자율화 (=학교학원화 또는 교육포기), 고교등급제, 국제중, 대입규제폐지... 바로 지금 경쟁력을 높인답시고 가고 있는 교육의 모습이야. 안 그래도 미쳐있던 교육이 더 미치려나 봐. 안 그래도 받기 힘들던 교육이 더 힘들어지려나봐.

정말 사람들이 행복한 교육,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이 먼지, 우리들이 직접 나서서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어?

청소년인권을 위한 기분 좋은 상상&실천

- 일제고사 같은 듣보잡 경쟁교육 정책들에 시험거부 등으로 저항하자.
- 경쟁을 일으키는 대학서열화를 깨고 대학평준화, 무시험 입학 등을 도입하자.
- 학력, 학벌, 학과, 직업 차별을 최소화하거나 없애기 위한 변화를 만들어 가자.
- 모두를 위한 공짜(무상)교육과 환경, 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예산을 늘리게 하자.
- 교육과정과 수업내용 정하는 것에 청소년들의 민주적참여를 보장하게 만들자.
- _____ (상상력을 발휘해서 직접 채우기 ^^)

LET'S ASUNARO

핀란드 같은 나라의 교육들은, 적어도 한국보다는 좀 더 청소년들의 인권과 행복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은 교육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프랑스와 칠레 등에서는 청소년들이, 때로는 교사들이나 학부모들 등과 함께, 직접 행동하여 교육 정책들을 바꿔냈습니다. 당연한 권리가 짓밟힐 때, 필요한 것은 비겁한 침묵과 순응이 아닌 저항입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바로 당신, 바로 여러분이 같이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시경쟁의 중심에서 인권을 외치다

“피할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으면
싸워서 바꿔야 합니다”



cafe.naver.com/asunaro

입시경쟁의 중심에서 인권을 외치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1986년 자살한 중학생의 유서 中

난 1등같은것은 싫는데... 앉아서 공부만 하는 그런 학생은 싫는데, 난 꿈이 따로 있는데, 난 친구가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엄마가 싫어하는 것이지. 난 인간인데. 난 친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헤어짐에 울 수도 있는 사람인데.

.....너무나 모순이다, 모순. 세상은 경쟁! 경쟁! 공부! 공부! 아니 대학! 대학! 순수한 공부를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닌, 멋들어진 사각모를 위해, 잘나지도 않은 졸업장이라는 쪽지 하나 타서 고개 들고 다니려고 하는 공부.

.....매일 경쟁! 공부! 밖에 모르는 엄마. 그 밑에서 썩어들어가는 내 심정을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난 로봇도 아니고 인형도 아니고, 돌맹이처럼 감정이 없는 물건도 아니다. 밝히다밝히다 내 소중한 삶의 인생관이나 가치관까지 밝혀버릴 땐, 난 그 이상 참지 못하고 이렇게 떠난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난 그 성적순위라는 울가미에 들어가 그 속에서 허위적거리며 살아가는 삶에 경멸을 느낀다.

“하지만 사회는 내게 그걸 바라지 않아”

2007년 자살한 중학생의 유서 中

인간은 항상 자유를 추구하는구나.. 나도 자유로운 사람이되어야지. 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현실은 너무달라. 상상 이상으로 너무달라.

공부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 다 남이야기 같았어. 하지만 아니야.

공부공부공부공부. 좁디좁은교실에 선풍기4대히터2대. 40명이 넘는 아이들.. 같은곳에서 각기 다른재능을지닌 아이들이 오직 한가지만 배우고 있었어. “대학가는법”.

슬펐어.

.....난 사실 평범한 여중생일뿐이야.

노래부르길좋아하고, 그림그리길좋아하고, 수다떨길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놀기를 좋아하는,

하지만 사회는 내게 그걸 바라지않아.

같은머리 같은옷 그리고 같은공부.

좁디좁은 교실에 아이들을 구겨넣고, 선풍기4대와, 히터2대. 그리고 선생님..

경쟁적 교육은 인권침해다!

다들 “교육에 문제 있다.”라고 씹기 바쁘지만, 정작 교육을 바꿔보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 어떤 사람들은 학벌과 입시, 경쟁과 차별은 당연한 거라고, 바꿀 수 없다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말하지.

그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육 때문에 목숨을, 행복을, 꿈을 잃고 있지.

교육 같지도 않은 교육 속에서, 인권도 행복도 삶도 무시되고 있어. UN 아동권리위원회도 한국의 경쟁적 교육이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지. 입시경쟁은 쉬고 놀 권리를 짓밟고, 성적이나 학교에 따른 차별을 만들고, 체벌 같은 폭력의 이유가 되고, 획일적인 교육을 만들지. 이런 상황에서 ‘선택’ ‘자유’ 같은 건 다 거짓말이야. 기본환경 자체가 강압이잖아?



정답만 강요하는 시험과 점수라는 숫자들로 우리를 값매길 수 있다는 발상은 정말 토 나와. 입시경쟁은 모두에게 안 좋아. 획일적이고 점수 따는 법이나 가르치는 게 제대로 된 교육이나 자기개발일 수는 없어. 입시경쟁은 교육권/발달권을 짓밟는 명백한 인권침해야.

피할 수도 즐길 수도 없으면 싸워서 바꾸자!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학벌학력차별금지 같은 것들은 좀 더 살만하고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한 시작이고 한 걸음이야. 다양하고 평등한 사회,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 민주적인 교육, 모두 가능한 일이야.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순응하지만은 말자. 입시경쟁 교육을 거부하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교육, 새롭고 다른 교육, 우리가 행복한 교육을 말하자.

